

제목: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벌써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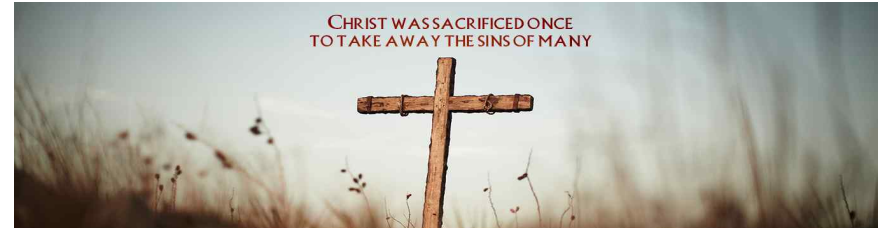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1. 약속이 있는 첫 _____이기 때문입니다.
2. 세상에서 _____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3.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_____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주일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Ephesians 6:1-4절 신약 316 페이지 Presider
-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Obey your parents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579(304)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이 길의 끝)

4년 전 그동안의 1세 목회를 마무리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떻게 먹고 사는가? 예서부터 누구를 만나는가?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다. 33년 사역의 기간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던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멀리 이사 왔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마음은 안 그럴것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목회라는 것을 두고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것 같은 끈끈한 관계는 지속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고 또 그러한 관계들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가까워진 관계들이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만난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내가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지만 늘 연락하며 같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진 관계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들었다고 생각한 관계들은 그대로 끝이 나고 평범하게 대했던 관계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며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후회도 된다. 관계가 지속된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드렸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였다고 하기 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인기몰이를 중요시했던 지난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본다. “분명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공생애 끝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수와 하늘로 치솟는 인기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꼭 있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셨다. 사역의 끝에 그 십자가를 꼭 지고 골고대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다. 예수님 편에는 한명의 사람도 없었다. 그 중 마리아와 같이 관찰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움과 분노가 들끓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벌써부터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기 원하셨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였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장 2절)라고 증거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관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셨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후회와 낙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얼마 후에 1세 목회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나에게 또 한 번의 교회 개척을 허락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회가 되고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가야지”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마음에 들어온다. 그것이 참 사역의 길이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자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5월호)

생명의 삶 5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5/6월 행사

5월 1일 (주) 어린이 주일
5월 8일 (주) 아버지 주일
5월 15일 (주) 청년 주일
6월 5일 (주) 성령 강림 주일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